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재개발과 교육의 필요성

글 정희영 총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계관이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음은 뉴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본인들 보다 몇 살 아래인 학생들의 돈을 뺏고 각목을 휘둘러 목숨을 잃게 하는 사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사건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며 잘못된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본주의 교육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인본주의 교육이 시작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9세기 말 복음을 위해 내한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세운 학교와 그 교육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언더우드와 스크랜턴 등이 세운 근대식 학교에서 듀이 밑에서 학위를 받은 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이곳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 곳에서 듀이의 철학을 공부하고 왔다. 일제 강점기를 맞아 지하에 숨어 있던 그 유학파들이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 한 예가 1950년 미군 정권 하에서 미국에서 듀이를 연구한 오천석이 '새교육'이라

는 슬러건을 내걸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이 때 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교육과정의 교육 철학은 인본주의의 거장인 듀이의 교육철학에 의해 구성되어진다.

우리나라 교육이 인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대부분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 진화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세계사에서는 “인류는... 아프리카 땅에서 진화하였고”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지학사에서 나온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인류의 시조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개골의 용량도 작아 유인원에 가까웠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가운데 3학년이 배우게 되어 있는 「윤리와 사상」에서는 인간이란 어떤 고정 불변의 실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교육적 노력,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가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계몽주의의 선구자인 존 록크(John Locke)의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옹고 그림의 기준은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환경이 바뀌면 그것에 의

해 옳고 그름의 기준도 바뀌게 마련이다. 즉,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볼 때 청소년들의 세계관이 인본주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청소년들은 어떠한가? 기독교 청소년들 역시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세계관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한 90%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아담과 이브는 역사적인 인물인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70%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 배울 때는 창조에 대해 배웠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겨우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으로 인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는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본주의와 다원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물결 속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재는 몇 권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거의 외국책이다. 이러한 상황 앞에 기독교인 교육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상과 같은 현상은 포스트모던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뒷집만을 지고 있을 것인가? 자신의 전공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할 것인가? 전공한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그 일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인 행동을 미룰 것인가?

UTT 청소년 세계관교재 개발 위원회

David A. Noebel의 <Understanding the times, 이하 UTT>은 미국의 기독교세계관 교육기관 중 하나인 Summit Ministries(www.summit.org)에서 발간한 기독교세계관 훈련교재이다. UTT는 기독교 신앙을 견고히 하고, 반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변호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된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세계관 훈련 교재이다.

UTT는 세계관의 정의와 역할, 특히 오늘날 문화의 상황 속에서 세계관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의 영역인 신학, 윤리, 생물, 심리, 사회, 법, 정치, 경제, 역사를 기독교, 이슬람, 세속적 인본주의, 마시스트,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각각의 입장을 기독교세계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UTT를 포함하여 Summit Ministries는 초등, 중등, 고등, 주일학교 과정으로 세계관 교재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것을 교육과정으로 하여 교회, 학교, 홈스쿨링을 통해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청소년 세계관교재 개발 위원회에서는 UTT를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세계관 교재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UTT를 번역하고, 각 장의 내용을 토론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계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세계관 설문조사와 교과서 세계관 분석을 실시했다. 현재는 이것을 토대로 UTT의 핵심내용과 포맷을 살리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세계관 교재를 집필 중에 있다.

